

# 2014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고사(인문계)

## <출제 기본 방향과 논제 관련 제시문 해설>

### 1. 출제 기본 방향

2014년도 고려대학교 논술고사(인문계) 출제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시험의 평가요소를 보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 1) 제시된 글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교하는 능력
- 2)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제시된 글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논술하는 능력
- 3) 인간 및 사회 현상의 분석을 위한 기초 수리적 사고 능력

나) 제시된 글 ① ② ③의 출전은 모두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교과서와 EBS 교재이다. 출제를 위해 원문에 대한 다소의 수정과 가필이 있었으나 그 본뜻을 훼손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그 글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논제 I은 논리적 관계와 공통주제 면에서 고등학교 성적 상위권 학생에게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를 확보하도록 구성되었다. 글 ④는 앞의 글들과 연관된 구체적인 사회 현상에 대한 수리적 사례이며, 논제 II는 고등학교 수학 수준의 논리적 추리 전개 능력을 질문하고 있다.

## 2. 논제 관련 제시문 해설

### [인문계 A]

2014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고사의 주제는 ‘평등에 관한 다양한 관점’이다. 제시문들은 이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글들이다.

①의 글에서 세 화자는 평등에 관한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A는 평등을 ‘절대적 평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여기서 절대적 평등이란 개인의 환경, 노력, 업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기계적 평등’을 의미한다. 둘째, B는 평등을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한다. 상대적 평등이란 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여 각자가 이룬 업적에 따라 인간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업적주의’를 뜻한다. 셋째, C는 평등의 의미를 ‘실질적 평등’으로 확장하여 ‘결과의 평등’으로까지 이해하고 있다. 개개인의 노력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출발 조건을 동등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평등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②의 글은 조선 영·정조 시대의 실학자 연암 박지원이 쓴 소설 『허생전』의 일부이다. 개혁적 사상을 지닌 박지원은 『허생전』을 통해 당시 조선이 안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는데, ②에는 적절한 분배와 복지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이 글에서 연암은 허생과 군도들 간의 대화를 통해 군도들이 양민의 신분을 버리고 도적이 된 원인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초래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문에는 두 가지 분배 방식이 제시되어 있다. 하나는 군도들끼리 노략질한 재물을 균등하게 나누어 갖는 방식과 허생이 ‘빈 섬’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금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는 개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대적 평등’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농사를 지으며 양민으로 살아가고 싶은 도적들에게 그들의 의지와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이는 ‘실질적 평등’에 해당한다. 이 실질적 평등에 입각한 분배 행위는 재산이 없고 가

족도 없는 도적들을 양민으로 환원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에 해당한다. 연암은 당대 조선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불균형과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러한 적절한 분배 실현과 복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③은 대동법 실시에 대한 글이다. 조선 시대의 부세 제도는 전세, 공납, 균역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공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개혁 정책이 대동법이었다. 대동법은 가호(家戶)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기존의 공납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토지를 갖지 않은 농민은 일단 과세 부담에서 벗어났고, 토지를 가졌어도 1결에 12두만 납부하면 되었다. 반면, 토지를 많이 소유한 지주들은 부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반대가 심했다. 따라서 가호를 기준으로 부과한 기존의 공납 방식은 A의 ‘절대적 평등’에 해당되고, 이 제도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의 결수에 따라 부과한 대동법의 공납 방식은 B의 ‘상대적 평등’ 혹은 ‘업적주의’에 해당된다. 이러한 대동법은 개인의 토지 보유량에 비례하여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의무에서의 평등을 구현했다고 볼 수 있다.

④는 다양한 조세정책의 효과를 간단한 모형을 통해 보여주는 내용이다. 각 농민들은 서로 다른 필지의 크기와 비옥도를 가진 논을 소유하고 있다. 먼저 필지의 크기와 비옥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농민 당 세금을 부과하는 인두세의 정책적 효과를 살펴보고, 필지의 크기를 고려하여 필지 당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과의 차이를 직접 계산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필지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소득이 한쪽으로 편향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소득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필지의 크기뿐만 아니라 비옥도의 차이를 고려한 정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조건을 도출하고, 조세 수입의 관점에서 필지 당 세금 정책과 이를 비교할 수 있다.

## [인문계B]

2014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고사(인문계B)의 공통 주제는 ‘자발적 결사체’이다. 여러 교과서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글들을 발췌하여 제시문을 구성하였다.

①의 글은 이번 논술고사의 공통 주제인 ‘자발적 결사체’를 개관하는 성격의 글이다. 글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 첫 부분에서는 자발적 결사체의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회적 연결망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혈연과 지연과 학연이 중요한 사회적 연결망으로서 기능하였으며 근대 이후 교통망과 통신망의 발달과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사회적 연결망의 확산이 가속화되었다. 그와 더불어 새로이 등장한 사회적 연결망은 참여 방식에서 열려 있으며 평등한 관계와 민주적인 의사 결정 방식을 지향한다.

이 글의 둘째 부분은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에 힘입어 등장한 현대의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에 대해 소개한다. 자발적 결사체는 오락과 친교 같은 사적 관심이나 모종의 현실적 이익을 위해 출발하지만 두 가지 성격을 모두 지닐 수 있다.

이 글의 셋째 부분은 자발적 결사체가 그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 공익성을 지향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다. 어떤 자발적 결사체들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추구되는 공동선을 통해 시민적 우애를 익히고 그러한 내적인 성과가 정치적 정의 실현으로 승화되기도 한다. 이 글의 말미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자발적 결사체가 시민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②의 글은 자발적 결사체의 두 사례를 ㉠과 ㉡로 나누어 소개한다.

㉠의 사례는 인터넷 동네 커뮤니티의 진화 과정을 보여준다. 애초에 친목을 위한 모임으로 출발한 그 커뮤니티는 집값 담합처럼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면모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그 커뮤니티가 긍정적으로 발전한 경우에는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한 참여함으로써

공익적 성격을 갖기도 한다. 한 지자체는 동네 커뮤니티의 그러한 공익적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한다.

⑧는 일제 강점기에 백정들이 결성한 형평사의 형평운동을 소개한다. 1920년대 형평운동의 발생 원인은 백정들에 대한 차별대우에 있었다. 백정들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 형평사를 조직하여 활동을 전개하였다. 백정들은 형평운동을 통해 신분과 계급에 따른 차별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야학과 강습소를 열어 회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차별 철폐와 계몽 운동은 비단 형평사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당대의 조선 민족 전체에 대해 보편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었기에 형평운동은 전국적인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형평사는 이익집단으로 출발하였지만 공익적 성격의 집단으로 발전한 사례에 해당한다.

③의 글은 공통 주제에 대한 수험생의 창의적 사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글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적 우애의 정치적 실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 공동체가 실현되려면 정의와 우애 중 어느 한 쪽에 치우침 없이 양자가 동시에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그의 주장은 정치의 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정치 공동체는 덕을 소유한 시민들 사이의 시민적 우애로부터 출발할 때 이기주의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 정치는 덕스런 시민들 사이의 우애에서 비롯함으로써 공동의 선을 추구할 수 있다. 만약 시민들이 이기적인 입장에서 저마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공동선의 달성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시민적 우애에 기반한 공동체의 유대가 강할수록 공적인 가치를 지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민적 우애가 시민들 사이에서 부도덕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글 ①에서 암시된 공익 실현 가능성에 대한 수험생의 발전적 사유에 응용될 수 있으며 ②의 두 사례에 내포된 공익성의 문제에 대한 반성적 사유에 참고 될 수 있다.

④ 제시문은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상황을 모형화한 것이다. 사회적 연결망과 관련한 3가지 상황을 문제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사회적 연결망이 일차원인 경우 정보 발신 또는 수신자의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을 찾는 문제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연결망이 이차원인 경우 연결의 중심을 찾는 문제이다. 마지막은 사람들이 어떤 단체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집단으로 참여하는 것이 왜 유리한지를 결정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해하는 문제이다.